

# 신호유화, 매각 따라 워크아웃 졸업

아람컨소시엄에 161억원으로 최종계약 ... 새출발 강한 의지 표명

국내 최대의 EPS(Expandable Polystyrene) 생산기업인 신호유화(대표 황규억)가 2004년 8월19일자로 아람과 이낸설서비스를 대표로 하는 아람컨소시엄에 매각됐다.

매각계약은 269억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포함해 주식 33만8000주 등을 총 161억원에 인수키로 최종 결론지었는데, 신호유화는 2000년부터 끌어온 워크아웃을 조속한 시일내에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4년 3월19일 M&A 추진과 관련해 자문기관인 삼일회계법인과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아람과이낸설서비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 및 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 신호유화 경영실적

(단위: 100만원)

구 분	2004.1-3	2003.1-3	2003
매출액	74,703	73,128	98,018
영업이익	1,659	8,534	10,0523
경상이익	-1,829	3,949	-1,359
당기순이익	-1,829	4,192	-925

† 6월 결산법인

한편, 신호유화는 2004년 매출액 927억원, 영업이익 70억원과 함께 해외법인을 포함해 경상이익 20억원의 사업목표를 설정해 경영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8/30>